

현대차, '크레타 EV' 출시 임박... 인도 전동화시장 본격 공략

〈해외 전략형 SUV 모델〉

아이오닉 5 등 SUV 라인업 확장
크레타 EV, 내년 1월 출시 예정
2030년까지 5개 전기차모델 투입



현대자동차 인도 SUV 라인업

현대자동차가 해외 전략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모델 크레타 EV로 인도 시장 공략에 나선다.

현대차는 인도 자동차 시장에서 내년 초 첫 현지 생산 전기차 SUV 모델 '크레타 EV'를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출시한 현지 전략 SUV 알카자르의 부분변경 모델에 이어 현지 전략 SUV 라인업을 확장한다.

내년 1월 출시 예정인 크레타 EV는 지난 2015년 출시한 현대차의 첫 인도 전략 SUV인 크레타의 전기차 모델이다. 크레타 EV는 1998년 인도 첸나이 공장이 생산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현지에서 생산하는 전기차로 상세 제원은 출시 시점에 공개된다.

현대차는 올해 9월 현지 전략 SUV 알카자르의 부분변경 모델도 출시했다. 이번 부분변경 모델은 새로워진 외관과 다양한 안전·편의 사양을 추가해 현지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현대차는 이처럼 현지 시장 상황과

인도 고객 수요를 공략한 현지 전략 SUV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

현대차는 인도 시장 진출 초기에 i10, 썬트로 등 경·소형 차량을 주력 차종으로 판매했다. 썬트로는 첫 현지 전략 차종으로 '인도 국민 경차'로 불릴만큼 인기를 끌어 현대차는 진출 첫해부터 시장 점유율 2위에 올랐다.

현대차는 인도 자동차 시장 성장에 맞춰 2015년 7월 첫 현지 전략 SUV 모델 크레타를 출시했다. 넓은 후석 공간과 실내 공기청정기 탑재 등 현지 맞춤형 상품으로 개발한 크레타는 출시 후 3개월 연속 인도 전체 SUV 중 월 판매 1위를 기록했다. 출시 첫 해에만 4만 888

대가 팔리며 '2016 인도 올해의 차(ICOTY)'로도 선정됐다. 현대차는 크레타의 성공에 힘입어 2021년 3월 SUV 알카자르, 2023년 엔트리 SUV 엑스터를 연달아 출시했다.

현대차는 여기에 베뉴, 투싼, 아이오닉 5까지 총 6종의 차급별 SUV 라인업을 구축해 인도 자동차 시장 판매 '톱티어'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현대차는 2016년 연간 판매 50만대 돌파에 이어 지난해에는 60만 2111대를 판매해 연간 최다 판매 기록을 세우며 14.6%의 시장 점유율로 전체 브랜드 중 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인도 시장 SUV 판매 대수는 전체 판매량의 절반이 넘는

36만 854대를 기록했고 그 중 크레타, 알카자르, 엑스터 등 현지 전략 SUV 차량 3종이 총 22만 6155대가 팔렸다.

올해는 9월까지 45만 9411대가 팔렸고 그 중 SUV 판매가 30만 8462대로 67%를 차지한다. 현대차는 올해 인도 시장에서 60만 5000대를 판매할 계획이다.

한편 현대차는 인도에서의 판매 호조를 이어가고 중추적 모빌리티 기업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100만대 생산체제·전동화 생태계 구축 등 2030 중장기 전략도 수립하고 있다.

올해 4월에는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직접 인도를 방문해 해외 지역에서는 최초로 탄소홀 미팅을 갖고 현지 임

직원들과 수평적이고 열린 소통을 통해 중장기 전략을 논의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GM으로부터 인도 마하라슈트라주에 위치한 푸네공장을 인수, 20만대 이상의 생산능력을 목표로 설비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 푸네공장이 가동되면 현대차는 첸나이공장(82만 4000대)과 푸네공장을 주축으로 100만대 생산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현대차는 크레타 EV의 출시와 함께 인도 전기차 선점을 위한 전동화 사업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는 크레타 EV를 포함해 2030년까지 5개의 전기차 모델을 인도시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공개매수 중지 분수령... 핵심쟁점 배임 소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이르면 금일 2차 가처분 판결
"투자자, 주가 급락락 주의해야"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중지 2차 가처분 사건 심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핵심 쟁점은 고려아연의 배임 소지, 임의적립금 사용 가능 여부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을 저지하기 위해 영풍·BMK 연합이 신청한 2차 가처분 결과가 이르면 금일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영풍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최 회장이 제시한 주당 89만원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지 ▲임의적립금을 이사회 결의로 자사주 취득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1대주주 영풍이 참여할 수 없는 자사주 공개매수가 주주평등원칙에 위배되

는지 여부 등을 놓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법원 판결 직후 고려아연 주가가 크게 출렁일 수 있어 주식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영권 분쟁 이후 50만원대에서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던 고려아연 주가는 영풍·MBK 연합의 공개매수 첫날인 지난 9월 13일 당시 공개매수가인 66만원을 넘긴 데 이어 지난 9월 70만원대 이상으로 크게 뛰었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수가 시작된 이후에는 83만원까지 올랐다. 직전 거래일인 지난 18일 종가는 82만 4000원이다.

영풍·MBK의 공개매수는 지난 13일 마무리됐다. 영풍·MBK는 지분 5.34%를 확보했다.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만 남은 상황에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자사주 매수가 무산되면 주가 하락 가능성이 크다. 시장에서는 법원이 2차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고려

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 가격으로 최종 제시한 89만원 안팎까지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영풍은 고려아연이 지난 4월부터 오는 23일까지 3조 6000억여원 규모의 자사주를 공개 매수한다고 밝히자 이를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반면 최 회장은 측은 자사주 공개매수가 외부 세력에 의한 적대적 M&A에 대응해 기업 가치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려아연 지분 7.83%를 쥐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2년 전 고려아연 주총에서 장형진 영풍 고문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국민연금은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이후 임시주주총회 날짜가 결정되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열어 의견결정 행사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지난 16일 미국 조지아 공과대학교에서 진행된 '수소터빈 국제공동 연구개발(R&D)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두산에너지빌리티

두산에너지빌리티, 수소터빈 개발 성과 공유

수소터빈 국제공동 R&D 심포지엄
"연구협력 통해 미주시장 참여 확대"

두산에너지빌리티가 미국 대학과 국제 과제로 수행 중인 수소터빈 연소기 개발 성과를 소개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미국 현지에서 수소터빈 기술력 홍보를 위한 '수소터빈 국제공동 연구개발(R&D)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두산에너지빌리티와 미국 주요 대학에서 수행 중인 수소터빈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미국 내 수소

터빈 연구개발(R&D)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6일(현지 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애틀랜타에 위치한 조지아 공과대학교(Georgia Tech)에서 진행된 심포지엄에서 두산에너지빌리티는 가스터빈과 수소터빈 개발 현황을 소개하고, 미국 주요 대학과 진행한 수소터빈 연소기 노즐 개발 성과를 발표했다.

두산에너지빌리티 손승우 파워서비스B G장은 "연구협력을 통해 수소터빈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미주 시장 참여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국제선 이용객 21% 증가... LCC, 분기실적 '청신호'

항공 수요 견조... 유가·환율 변수

3분기 국제선 이용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하는 등 항공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저비용항공(LCC)업체가 다소 부진했던 2분기 실적을 만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항공사 실적은 환율이나 유가 등 여러 요소에 영향을 받지만, 3분기 여객 수요가 탄탄했고 유

가 변동으로 인한 유류할증료 변동 문제가 크게 없었던 만큼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3분기 LCC 국제선 이용객은 802만 570명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23년 3분기 국제선 이용객은 655만 4665명이다. 전체 국제선의 국제선 이용객은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다.

특히 동남아·일본 노선의 수요가 견

조하다. 3분기 동남아 노선 이용객은 687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6% 증가했다. 일본 노선은 617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5% 증가했다.

LCC업계 관계자는 "3분기 실적 자료를 정리하는 중이고, 승객 수뿐만 아니라 유가나 환율도 고려해야 한다"며 "낙관도 비관도 아닌, 11월 실적 공시를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박대성 기자 iunmids@

이스타항공, 'B737-8' 12대 구매 계약

이스타항공이 세계적인 항공기 공급 난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기단을 확장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B737-8 항공기 12대 구매 계약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15대의 기재를 보유한 이스타항공은 2025년 7대, 2026년 5대를 도입해 2026년까지 항공기를 27대로 늘릴 방침이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2023년 3월 항공

기 3대로 운항을 재개했다. 이후 1년 7개월 동안 12대를 추가 도입해 15대까지 기단을 확장한 바 있다.

이스타항공 대주주 VIG파트너스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의 추가적인 성장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내년 큰 폭의 매출 증대를 확산하며 안정적인 흑자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성 기자